

시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와 중국 공동성 경제교류의 교두보가 만들어졌다.”

지난 4월 중국 출장 보고서 첫 머리에 쓴 말이다. 계임 후 가까스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중에 대선정국의 예민한 이슈인 중국관련 내용을 자제했다.

보수 세력들은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색안경을 쓰고 트집 잡던 때라 조심한 것이다.

이제명 대통령의 등장은 그간 미일 중심의 한반도 관계를 한미중러일의 합리적 실리적 균형 외교관계로 전환하는 시작이라 할 것이다.

2023년~2024년 한국의 수출대상 1위는 1천600억 달러로 중국이었고, 수입 면에서도 총수입중 중국이 20%를 차지해 가장 큰 수입국이었다. 물론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미중갈등 중국경기둔화 지정화리스크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빼놓고 경제를 말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에서 활동하는 한중경제인친선협회는 지난 4월 20여명의 산학연 대표단을 구성해 중국주광주총영사관 협력으로 ‘중국 산업의 핵’을 이루는 ‘광저우 중산 심천시’를 방문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한중경제인친선협회

광주-중국 경제협력에서 활로 찾자

는 광저우, 중산, 심천을 방문해 광저우시 간부 및 친선우호협회 교류회, 중산의 글로벌 기업 완미그룹, 심천시에서 중국의 첨단기업 텐센트 메이투안 마인드레이 국가첨단의료 기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대공방 (iMakerbase)과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실증기업교류 등 상호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익한 현장탐방이었고 상호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 중국 방문 후 중국광주총영사관과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나눴다.

첫째, 중국 방문 기관과 기업들에서 광주의 방문단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다. 중국의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태도는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물론 영사관의 적극적인 연결과 배려가 있었겠지만 그것부터가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중국경제의 변화와 혁신은 매우 빨랐다. 우리가 방문했던 기업들은 완벽하게 첨단화와 자동화된 스마트기업이었다. 광저우방송 텐센트 메이투안은 AI 데이터 스마트 플랫폼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었다. 완미나 마인드레이같은 생활용품 의료기업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중국이 규모가 크고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첨단기술은 한국에 뒤처진다는 그간의 생각은 무너지고 이제 더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다.

셋째, 광주와 광저우시는 AI와 자동차 문

화콘텐츠분야에서, 중산시는 광 조명산업분야에서, 심천시는 AI 첨단의료 IT 분야에서 광주시와 창업실증교류, 스타트업 협력, 공동연구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도시였다. 방문단은 이런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의 기관 기업에서도 받아들여 향후 상호협력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방문단과 영사관은 이런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간 협력모델로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 심천시간의 경제협력 채널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간 채널과 협력은 민간의 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둘째, 심천시나 광저우시 혹은 광주와 협력이 필요한 다른 도시간에 교류협력센터를 만들어 보자. 광주시에서 중국협력센터를 중국에서 광주협력센터를 상호간에 만들어 상시 소개 교류 전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교류촉진 사업으로 창업실증기업 테스트베드 상호협력, AI 바이오 에너지분야 등에서의 공동펀드 조성, 상호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문화 의료 관광분야의 교류 등은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이제 한중관계도 보다 새롭고 협력적관계로 발전돼야 한다. 거대중국은 한국경제협력의 동반자이고 광주는 거기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社説

민선 8기 마지막 남은 1년의 과제에 집중하자

지난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가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하마평은 물론이고 후보들의 물밑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상 선거전이 접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주제가 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임기라는 사실이다. 3년 전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어느정도 완수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임기 내에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지역의 리더들은 이미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행사장도 적극 찾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유권자와 관련된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결혼식장 등도 방문해야 할 일정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꿈꾸는 입지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자기 지방자치단체장 선택의 기준은 ‘지역발전 기여도’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및 공약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장을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를 풀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1개월 남은 기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지역민들은 그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해선 안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조용히 다가왔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나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본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서(島嶼)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습한 남서풍까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광주와 곡성·담양·구례·순천에는 폭염특보까지 발효됐다고 한다. 여기에도 이번 주에는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훨씬 무덥다고 하니 가뜩이나 고령 농업인이 많은 전남 지역에는 벌써부터 걱정이 심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령자와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최근 곡성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80대가 쓰러져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해마다 전남지역 여름철 폭염 관련 구급 환자 이송 건수가 100건이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민·관 모두

긴장을 결코 늦추선 안될 것이다.

무더위는 몸속의 수분을 빼앗은 것은 물론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그리고 만성 질환자는 폭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더위를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스스로가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기본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오는 9월30일까지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해 온열질환자가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만약 폭염과 관련해 몸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기고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은 오는 2028년 세 번째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는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11년 만으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완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해조류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8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비롯해 사전 행사적인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의미와 필요성을 군민과 함께 인식해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해조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가치 제고

과거 해조류는 주로 식재료로 인식돼 왔다. 그것도 아시아 일부 국가에 국한 됐고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해조류를 ‘바다의 잡초 (seaweed)’라고 칭할 정도로 저평가 돼 왔다. 그러나 2014년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이후 해조류는 단순 먹거리를 넘어 바이오소재, 의약품 원료, 화장품,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김산업은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4년 수출액 2억7천 달러 (2천766여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7억9천 달러를 (1조원) 달성하고 세계 김시장의 70%이상을 한국김이 점유하고 있다.

◇해조류 세계시장 선점 위한 전략적 필요성

한국은 세계 해조류 생산량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완도는 연간 80만t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산지다. 완도의 해조류는

2028완도해조류박람회로 해조류 산업 발전 추진

ASC(국제 친환경 인증)를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 세계 해조류 시장은 일본이 주도했다.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영문 표기만 보더라도 일본식 표기로 꽤 깊은 ‘노리(Nori)’, 미역은 ‘와카메(Wakame)’, 다시마는 ‘콤부(Kombu)’로 거대 됐다.

완도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김은 Gim, 미역은 Miyeok, 다시마는 Dasima로 한글식 영문 표기를 주도했고 이제는 당당히 세계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해조류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2028 박람회는 필수적이며, 그 전초전으로서 2026 PRE박람회의 개최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해조류와 블루카본인증

해조류는 육상 식물 대비 50배 이상의 탄소흡수 능력을 가진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해조류는 아직까지 국제기후기구 (IPCC)로부터 블루카본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조류가 탄소거래제에 참여해 지역 기본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선도지자체로서 완도군은 2024년 11월 미국 NASA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에너지부를 직접 방문해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공동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를 협의했다.

만약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된다면, 완도는 탄소 거래제 수혜 1순위 지역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의 관심과 인정받는 완도 해조류

지난해 NASA는 완도 해조류 양식장의 위성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는 완도의 해조류 산업이 전

지구적 관심의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WB), 세계자연기금 (WWF), 미국, 영국, 호주, 아프리카 등 각국의 해조류 전문가들이 완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배우고 협력을 논의했다.

이처럼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조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박람회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돼야 한다.

◇해양자유산업과의 시너지, 미래 성장동력

완도는 해조류 산업뿐 아니라 국내 해양자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두 산업 간의 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 인구 유출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2028 박람회는 단순 전시를 넘어 국제학술대회, 전문가 세미나, 기업 교류회,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도를 글로벌 해조류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2028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완도군은 이미 두 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선점했다.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2028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2026년 PRE국제해조류박람회와 2028국제박람회 성공 개최와 정부의 지원,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4만5천 군민과 함께 신명을 바쳐 준비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투고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잠깐인데 괜찮겠지”, “뒤회차식은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며, 안전띠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만의 분석에 따르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률은 절반 이하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준수

로 감소한다. 특히 뒷좌석 미착용 시에는 앞좌석 탑승자까지 중상을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와 승객들은 단거리 이동이거나 뒷좌석 탑승일 경우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살마 나에게?”라는 방심 속에서, 사고는 어느 순간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도 따른다.

장흥경찰서는 ‘타면도 착, 안전도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는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홍보를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차량에 오르기 전 단 한번의 착,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유림·장흥경찰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국세수입 현황

5월 누계, 단위:조원

151.0

30.1

2.3

38.8

28.3

51.5

172.3

32.2

1.3

38.4

42.7

57.7

기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연합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현황 등으로 작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다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세수입 예산안을 10조3천억원 줄이는 세입경정안을 발표했고, 오는 9월에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천원 견했다. 작년 동월보다 4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른바 '서확개미'가 이끄는 해외주식 현황과 작년 기업 개선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천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604억달러로 1천152억달러 (79.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도 양도소득세 증가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원 견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3천억원 늘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로는 46.3%로,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 (46.2%)과 유사하다. 1-5월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FAX 650-2099 650-2070 650-2011 650-2007 650-2020					
광국 650-2016 편국 650-2017 업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